



Celadon Kuchida with inlaid peony design

SPECIAL EXHIBITION

2009년
구입유물특별전

연에서 골라 하나를 얻었네

GANGJIN CELADON MUSEUM

2 0 0 9 년 구 입 유 물 특 별 전
Special Exhibition of the purchased Collections 2009

열에서 골라 揀選十取一
하나를 얻었네

올해로 개관 11주년을 맞는 강진청자박물관은 500년 고려청자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청자 전문박물관입니다. 천 년 전부터 강진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청자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교한 공예기술과 우수한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진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많은 자료와 가마터를 전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구입한 유물 역시 뛰어난 제작기술과 아름다운 조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7회 강진청자축제를 맞이하여 강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질 좋은 청자만을 선별하여 「열에서 골라 하나를 얻었네 - 揀選+取一」라는 구입유물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고려청자는 인위적이거나 도식적인 화려함보다는 비색 유약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소재로 한 조형이 아름답습니다. 전시된 유물을 통해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고려청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강진군수 황 주 흥

○ 발간사	03		
○ 2009년 구입유물 특별전	07		
01 꽃넙쿨무늬 완 <small>靑磁陰刻花唐草文盤</small>	08	09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small>靑磁象嵌菊花文花瓶龍頭盞</small>	44
02 꽃모양 접시 <small>靑磁花形碟</small>	12	10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small>靑磁象嵌菊花文花瓶龍頭盞</small>	48
03 잔 <small>靑磁 盞</small>	16	11 국화무늬 능화모양 접시 <small>靑磁象嵌菊花文菱花形碟</small>	50
04 참외모양 주자 <small>靑磁繪畫絲文瓜形注子</small>	20	12 '三官'이 새겨진 국화무늬 잔 <small>靑磁象嵌菊花文'三官'銘盞</small>	54
05 모란무늬 정병 <small>靑磁象嵌牡丹文淨瓶</small>	24	13 '地'가 새겨진 잔 <small>靑磁象嵌'地'銘盞</small>	58
06 연꽃·국화무늬 참외모양 주자 <small>靑磁地畫蓮菊文瓜形注子</small>	30	14 국화무늬 꽃모양 접시 <small>靑磁象嵌菊花文花形碟</small>	62
07 배화갈대학나비무늬 사이호 <small>靑磁象嵌梅蓮蝴蝶文四耳盃</small>	34	15 용무늬 매병 <small>靑磁象嵌龍文梅瓶</small>	66
08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small>靑磁象嵌菊花文花瓶龍頭盞</small>	40	16 국화무늬 접시 <small>靑磁象嵌菊花文碟</small>	72
		○ 도판목록	77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강진청자박물관 2009년 구입유물특별전 도록이다.
2. 본문은 각 유물의 도판과 함께 해설을 같이 수록하여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 유물의 명칭과 편년, 도판해설은 본 박물관 학예연구실의 견해에 따랐다.
4. 도판해설은 유물의 명칭(한글·한문·영문), 시대, 크기 순으로 표기하였다.
5. 유물의 실측 단위는 cm이다.



2009년 구입유물 특별전

Notable Selections from the purchased Collections 2009

그릇은 각 시대와 지역,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왔다.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장식을 붙이거나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유약이 발명되면서 그릇은 실용적 면과 미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청자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 역시 고려시대의 사회, 종교, 식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식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대접과 접시, 병 외에도 매병梅瓶, 유병油瓶, 향로香爐, 합盒, 호壺, 향缸, 잔盞, 주자注子, 정병淨瓶, 벼루硯, 베개枕, 연적硯滴, 기와瓦에 이르기까지 청자만으로도 고려시대의 문화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강진청자박물관에서 올해 구입한 유물은 정병, 사이호, 주자, 용두잔, 매병, 화형접시, 능화형접시 등 종류가 다양하며, 주로 강진 청자가마터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많다. 정병과 사이호는 형태와 문양, 기법 모두 최고의 제작기술로 만든 걸작이다. 정병에서는 인위적인 듯 보이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장인의 의도와 재치가 엿보이고, 사이호는 갈대를 중심문양으로 삼고 매화와 함께 나비, 학을 배치한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어 흥미롭다.

연화과 국화가 꽃가지 형태로 시원스럽게 그려진 주자와 용머리 장식이 있는 화형잔花形盞, 비색 유약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접시, '삼관三官', '지체'가 상감된 잔, 용과 여의주가 섬세하게 상감되어 있는 고려시대 말의 매병도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유물이다.

01

꽃넝쿨무늬 완 靑磁陰刻 花唐草文 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flower-v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7 입지름 18.6 굽지름 5.7



그릇 내면에 꽃이 음각되어 있는 완이다. 이 완은 고려청자가 초기단계를 벗어나 비색의 유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대표하는 그릇 형태와 시문기법을 보여준다. 굽이 낮고 지름이 좁을 뿐 아니라 접지면의 폭도 좁아지는 형태이다. 완의 측선이 저부에서 완만하게 벌어지고 구연이 넓게 외반되였다. 완의 내면 중심에 넓은 원각이 뚜렷하게 있고, 측면에는 빠른 손놀림으로 꽃이 음각되어 있으며 구연이 외반되는 지점에 음각선이 한 줄 있다. 꽃을 자세히 보면 꽃잎이 여섯 개로 각 꽃잎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입과 줄기를 가진 꽃넝쿨을 마주 보게 배치하고, 양쪽에 남은 공간에 꽃과 넝쿨을 서로 마주보도록 음각했다. 구연 여러 곳에 파손된 흔적이 있고,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빛을 받침을 받쳐 구웠다. 이러한 꽃넝쿨 무늬는 완과 접시에 가장 많이 시문된다. 출토지로는 강진 용운리9호부터 용운리10호·20호·23호·32호·33호는 물론 계율리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최근에 충남 태안 죽도에서 인양된 청자에서도 확인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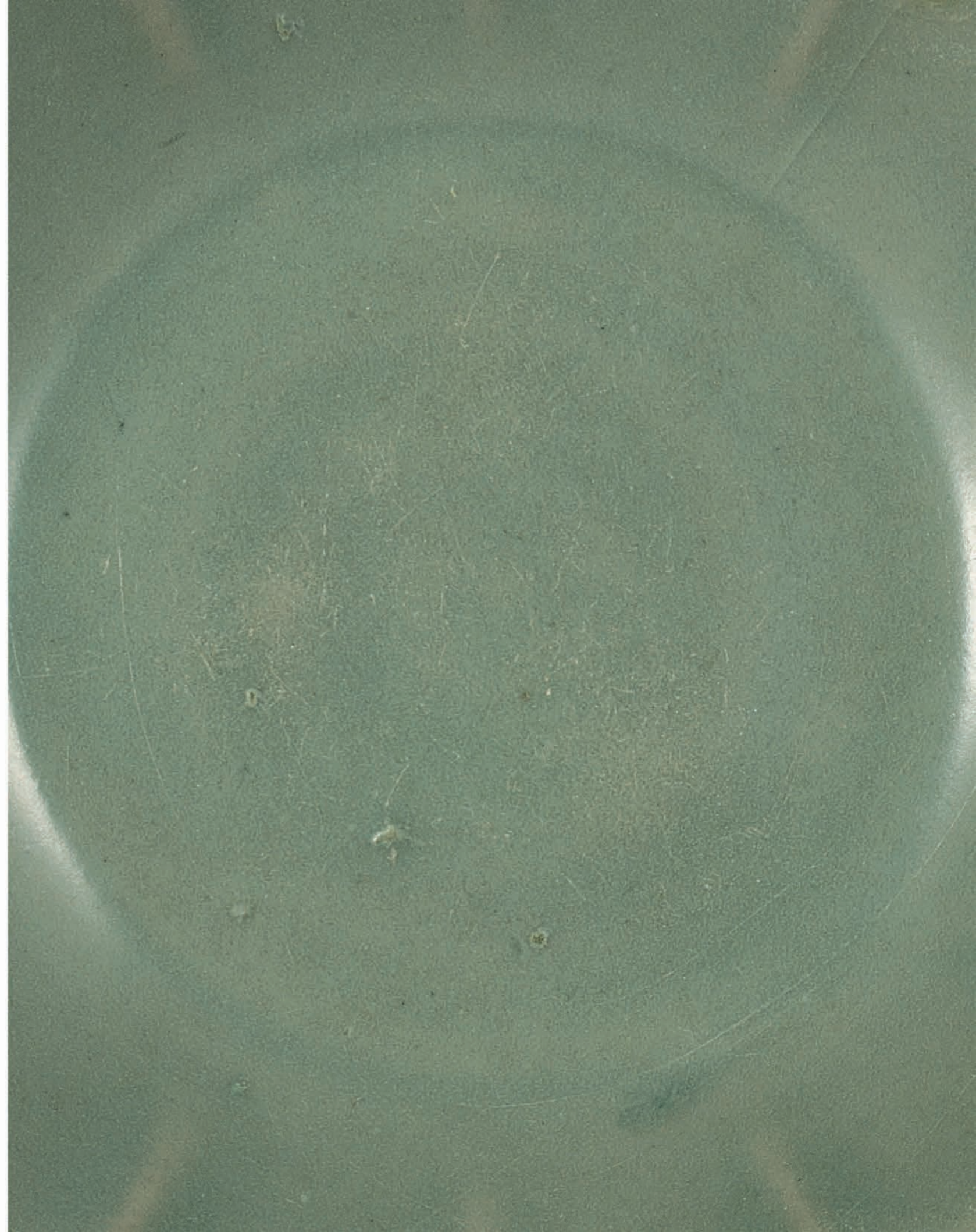
꽃모양 접시 靑磁 花形模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고려 12세기 | 높이 3.0 입지름 15.5 바닥지름 9.9



■ 무늬가 없는 꽃모양의 접시로 12세기 비색 유약이 가장 발달했을 시기에 만들어졌다. 접시의 바닥면이 편평하고 규석받침을 세 곳에 놓고 구웠다. 위에서 보면 활짝 핀 꽃을 보는 듯 하며, 열 두 개의 꽃잎을 가진 꽃모양으로 구연을 볼록하게 도려냈다. 도려낸 구연의 홈에 맞춰 접시의 측면도 바깥쪽에서 세로로 길게 눌러 화형(花形)을 강조했다. 접시의 안팎으로 유약에 사용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릇의 형태가 단정하고 절제된 듯한 느낌을 주며, 비색 유약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유약은 빙열(氷裂)이 없으며, 기포의 크기가 미세하고 일정하다. 이 접시는 인종(仁宗) 장릉(長陵) 출토품과 비슷한 12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03 **잔** 靑磁 盞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잔 - 높이 5.8 입지름 9.8~10.3 굽지름 4.8 | 뚜껑 - 높이 3.6 입지름 11.3 굽지름 9.0

■ 12세기 중반 인종 장릉에서 출토된 뚜껑있는 잔과 유사한 잔이다. 충남 태안 죽도에서 인양된 청자에도 이런 형태의 잔이 발견되었는데 뚜껑의 손잡이 모양과 잔의 크기 면에서 죽도에서 인양된 유물과 더 유사하다. 잔은 비교적 높이가 낮은 원통모양이며 굽 안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다. 뚜껑의 중심에는 연꽃 줄기를 짧게 말아놓은 듯한 모양의 손잡이가 붙어 있고, 형태는 둥글게 내려오다가 잔의 구연에 얹혀질 수 있도록 수평을 이룬다. 뚜껑 안쪽 면에는 유약이 없으며 중심에 내화토빛을 받침 흔적이 네 곳에 남아 있다. 태안에서 인양된 잔의 뚜껑은 안쪽에 유약이 입혀져 있는 예도 있다. 유약은 빙결이 없어 은은한 느낌이지만 약간 갈색을 띤다. 집지면 네 곳에 내화토빛을 받침을 받쳐 구웠다.





04

참외모양 주자 靑磁鐵畫 線文 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ron-painted l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2 입지름 3.1 굽지름 3.2

■ 크기가 작은 주자로 몸체가 여덟 개의 골이 쳐 있는 참외모양을 하고 있다. 원래 뚜껑이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몸체는 아래로 갈수록 볼록해지는 형태여서 안정감이 있다. 굽은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바닥이 얇게 파여 있는 안굽 형태이다. 작은 크기에 어울리도록 출수구出水口 역시 짧게 만들어졌는데 사각형으로 다듬었다. 참외모양의 골이 진 부분에 철화鐵畵로 선을 그었고 손잡이와 출수구의 옆면에도 표현하였다. 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었으나 선의 굵기가 일정치 않고, 윗부분은 진하고 아래로 갈수록 철화가 얇아진다. 안굽 바닥면에 철화로 글씨가 쓰여 있으나 판독이 어렵다. 글씨 있는 굽 안바닥 일부에 유약이 입혀져 있으며 굽 가장자리 네 곳에 내화토빛음을 받쳐 구웠다. 이 주자는 입수구入水口와 출수구가 있는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서 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05

모란무늬 정병 靑磁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1.5 | 주구입지름 3.5 | 몸체지름 14.5 | 굽지름 9.4

■ 모란꽃이 몸체 전면에 상감된 정병이다. 정병은 불교에서 부처나 보살에게 바치는 맑은 물을 담는 물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물병과 달리 물을 담는 입수구(入水口)가 몸체 옆에 있고, 물을 따르는 출수구(出水口)는 가늘고 긴 형태로 병의 위쪽에 있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출수구를 따로 만들어 정병의 목 부분에서 접합하고 중간에 둥글고 넓은 환대(環臺)를 놓고 이어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입수구에는 뚜껑이 있어서 고리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몸체 전면에는 활짝 핀 모란꽃가지를 자유롭게 배치한 듯 모란꽃의 위치가 획일적이지 않다. 자세히 보면 정병의 아랫부분 세 곳과 입수구 왼쪽의 모란은 꽃봉오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란을 상감하는 과정에서 남은 면적이 좁아지자 크기가 작은 꽃봉오리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 짐작되는데 장인의 재치가 엿보여 흥미롭다. 가늘고 긴 출수구는 팔각형으로 각이 져 있고 굽는 과정에서 약간 휘어졌다. 여덟 개 면을 모두 무늬로 채우지 않고 네 곳에만 교대로 닝쿨무늬를 상감하여 여백을 주었다. 출수구의 구연과 환대(環臺)의 가장자리에는 만관자를 상감하고, 환대의 둥근 윗면에도 모란꽃을 네 송이 상감하였다. 입수구의 윗쪽에는 연판문을 상감하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아래쪽은 음각기법으로 넓은 연잎을 표현하였는데 가장자리를 두 겹으로 겹쳐진 모양으로 처리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정병의 목과 몸체 일부는 약간 산화되어 갈색을 띠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약이 잘 녹아 담록색(淡綠色)을 띤다. 바깥면 전체에 무늬가 있으나 대부분 백토상감으로 표현되어 화려해 보이지 않고 단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굽 안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고, 접지면(接地面)의 유약을 깨끗이 닦아내고 모래빛을 받침을 받쳐 구웠다.







연꽃 · 국화무늬 참외모양 주자 再磁堆畫 蓮菊折枝文 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painte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 | 주자 - 높이 19.8입지름 3.5 굽지름 10.0 | 뚜껑 - 높이 4.4 지름 4.6

■ 퇴화기법으로 연화와 국화를 2단의 절지문折枝文으로 그린 참외모양의 주자이다. 연꽃은 꽃봉오리와 연잎으로, 국화는 꽃송이를 2단으로 그렸는데 선이 경쾌하고 빠르게 그린 듯 율동적이다. 주자의 기형과 유태釉의 질, 문양 등이 조화를 잘 이룬다. 주자의 뚜껑과 몸체 모두 여덟 개의 꽃이 저 있으며, 몸체의 윗부분이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꽃봉오리 모양과 비슷하고, 뚜껑의 크기가 작아서 전체적인 비례는 조화롭지는 않다. 여덟 개의 꽃잎모양으로 되어 있는 뚜껑은 각 면에 백토와 자토로 짚은 선을 두 줄씩 그었으며, 뚜껑과 이어지는 주자의 구연에는 연판문을 그렸다. 과형의 몸체에 그려진 무늬는 연꽃과 국화꽃이 있으나 여덟 개 면 중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면에만 연화절지를 주자의 앞뒷면에 하나씩 대칭이 되도록 그려 넣었다. 나머지 면에는 모두 국화절지를 그려 넣었는데 손잡이와 출수구가 있는 면은 국화절지를 1단으로만 표현하였다. 손잡이와 출수구가 몸체와 붙어있는 접합 부분에도 백토와 자토로 이중의 꽃모양을 그려 장식했으며, 특히 출수구는 그 꽃잎모양에 맞춰 면을 깎은 것을 볼 수 있다. 테토가 비교적 거칠고 유약도 약간 갈색을 띠며 주자의 아래쪽은 유약이 덜 녹아 황갈색을 띠기도 한다. 주자는 집지면 여섯 곳에 모래빚음 받침을 받쳤으며, 뚜껑은 주자의 구연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유약을 닦아내고 구웠다.





07

매화갈대학나비무늬 사이호 靑磁象嵌 梅蘆鶴蝶文 四耳壺

Celadon Jar with inlaid ume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3.1 입지름 8.4 굽지름 12.0

■ 갈대를 중심무늬로 하고 다른 부수적인 소재를 여백에 배치한 독특한 무늬구성을 보이는 사이호이다. 원래 뚜껑이 있었을 것이나 남아있지 않다. 입지름이 넓고 구연은 짧게 곧추세워진 형태이다. 어깨에는 여의두문이 가지런히 상감되어 있으며, 작은 고리 네 개가 부착되어 있다. 몸체 전면에 무늬가 가득 상감되었으며, 각 무늬의 구성은 도식적이며 계획적으로 배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갈대를 크게 두 개씩 상감하고, 갈대 사이의 공간에 가는 줄기에서 피어나는 매화꽃을 대각선 구도로 작게 표현했다. 특히 갈대의 줄기와 잎은 선명한 흑상감으로 표현되어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나비 여덟 마리와 땅을 의미하는 학 네 마리를 배치하였다. 갈대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갈대는 꺾여 있고 나머지는 위를 향해 있는데, 위를 향해 있는 갈대와 꺾여있는 갈대의 끝에 각각 나비를 두 마리씩 새겨 넣었다. 또한 매화를 중심으로 볼 때 한 쪽 매화 옆의 학은 나비를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다른 쪽 매화 옆의 학은 고개를 숙여 뭔가를 찾는 모습으로 상감하였다. 즉 갈대를 중심으로 하는 장면 두 개와 매화를 중심으로 하는 장면 두 개, 총 네 개의 화면이 사이호 몸체에 표현된 것이다. 이것은 무늬의 소재와 구도, 배치 등을 미리 계획적으로 충분히 구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면地面은 호의 밑부분에 있는 만근자무늬 띠가 대신하고 있다. 호의 한쪽면은 산화鐵化되어 갈색을 띠고 유약이 일부 뭉쳐있기도 하다. 굽은 접지면을 제외한 안바닥을 깎아냈으며, 접지면과 안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08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靑磁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14세기 | 높이 3.7 입지름 8.0~11.3 굽지름 3.9

■ 용머리 장식이 있는 꽃모양 잔이다. 잔의 형태, 조각기법, 용머리 장식 등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잔과는 달리 특별한 용도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손잡이 역할을 하는 용머리의 모습이 매우 당당하고 생동감있게 표현되었다. 용은 머리와 귀 뒤쪽, 턱밑의 갈기와 목 앞으로 이어지는 비늘의 모양이 섬세하게 만들어졌으며, 머리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잔의 몸체와 떨어져 있어 더욱 사실적이며 자연스럽다. 볼록하게 튀어나온 눈동자에도 철화로 짐을 찍어 생동감있게 표현했다. 잔은 구연 바로 아래를 넓게 깎아 구연이 둥글고 도톰하게 보이도록 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여덟 개의 꽃잎 모양을 하고 있는데 구연을 도려내고 접시 측면 역시 세로로 길게 한 줄 깎아내어 꽃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덟 개의 꽃잎은 다시 중간지점에서 세로로 길게 양 옆을 깎아내면서 가운데가 볼록한 선이 한 줄 보이도록 구분하여 각 꽃잎에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두 개씩 마련하였다. 구연 아래에 두 줄의 백상감 선을 구연의 모양에 맞춰 새기고 접시 저부에도 백상감 선을 한 줄 들렸다. 꽃잎의 외곽선 역시 백상감 선으로 구획하여 남아있는 두 곳의 빈 공간에 2단의 국화꽃을 상감하였다. 잔의 안쪽 바닥면에 꽃으로 보이는 무늬가 압출양각기법으로 희미하게 찍혀 있으며, 유약이 산화되어 갈색을 띠기도 한다. 굽은 바닥면을 안쪽으로부터 깎아 만든 안굽 형태로 옆에서는 편평한 듯 보인다. 굽 안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으며, 굽 가장자리에 규석받침을 받쳐 구웠다.



09-10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靑磁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14세기 | 높이 4.6 입지름 7.1~9.6 굽지름 4.2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靑磁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14세기 | 높이 4.3 입지름 6.8~9.3 굽지름 4.0



■ 용머리 장식이 손잡이처럼 부착된 꽃모양 잔이다. 잔의 형태, 조각기법, 용머리 장식 등으로 볼 때 일반적인 잔과는 달리 특별한 용도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두 점 모두 조각솜씨, 형태, 무늬구성이 동일하여 세트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잔은 전체적으로 여섯 개의 꽃잎 모양을 하고 있는데 구연을 도려내고 접시 측면 역시 세로로 길게 한 줄 깎아냈다. 여섯 개의 꽃잎은 중간지점에서 다시 두 줄의 선을 깎아냄으로써 무늬를 표현하는 열두 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바깥쪽 구연 바로 밑부분을 넓게 깎아서 구연이 도톰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두 줄의 백상감 선을 구연의 모양에 맞춰 상감하고, 잔의 저부에도 백상감으로 선을 두 줄 새겨 넣었다. 열두 개의 면에는 세로로 백상감과 흑상감 선으로 외곽선을 새기고, 빈 공간에 국화꽃을 3단으로 상감하였다. 용머리 모양의 손잡이는 용머리와 목을 조각하여 측면의 붙였으며, 눈동자는 철화점을 찍지 않고 점토를 둥글게 빚어 붙였다. 용의 가늘고 긴 목은 4면으로 각이 져 있으며, 비늘을 표현하기 위해 반달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4면을 촘촘히 눌러서 표현했다. 용머리 장식의 조형이 다른 유물에 비해 섬세하지 못하고 해학적이기까지 하다. 굽은 바닥면을 안쪽으로 깎아낸 안굽 형태이며 두 점 모두 굽 안바닥 가장자리 세 곳에 규석받침을 받쳐 구웠다.







11
국화무늬 능화모양 접시 靑磁象嵌 菊花文 菱花形標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5 입지름 22.7 굽지름 7.2 / 18.5



■ 높이가 낮고 전체 모양이 능화형인 접시이다. 전체적인 모양이 가로로 긴 타원형이면서 구연에서 굽에 이르기까지 여덟 개의 꽃잎모양인 능화형으로 성형되었다. 먼저 능화형의 틀(模)에 물레에서 성형된 접시를 얹어놓고 누르는 압출양각기법을 사용한 후, 그릇이 마르기 전에 무늬를 상감한 것이다. 구연이 전접시처럼 수평으로 꺾여 있고, 전에는 백상감된 선과 흑상감된 선으로 능화형 모양을 강조했다. 넓고 편평한 안쪽 바닥면 가장자리에도 압출양각 기법으로 두 줄의 선을 표현했다. 구연에 도려내진 홈에 맞추어 접시의 측면도 깎아냈으며, 여덟 개의 면에 국화꽃을 하나씩 상감했다. 굽은 매우 낮으며, 좁은 접지면을 남겨두고 굽 안바닥 전체를 얇게 깎아낸 형태이다. 굽 안바닥과 접지면이 유약을 닦아내고 굽 안바닥에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12



‘三官’이 새겨진 국화무늬 잔 再磁象嵌 菊花文 ‘三官’銘 盞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and inscription of "Sam-Gwan(三官)"

고려 13세기 | 높이 6.8 입지름 10.3 굽지름 3.4

‘三官’이 새겨져 있는 잔이다. 안쪽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으며 바깥쪽에 국화꽃가지가 상감되어 있는 고려 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물이다. 구연에서부터 잔의 저부까지 등글게 곡선을 이루고 몸체에 비해 굽이 낮고 지름이 좁아 전체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 바깥면 구연 아래에 만리자문을 배치하고 몸체 네 곳에 국화꽃가지를 상감하였는데 국화꽃 사이 한 곳에 ‘三官’을 세로로 흑상감하였다. 글씨를 새긴 솜씨가 서툰데 글씨의 획이 여러 번 끊어져 있기도 하다. 三官은 당시 도교道敎와 관련된 용어로 천관天官, 지관地官, 수관水官을 합쳐 일컫는 용어이다. 이 유물 역시 도교 관련 의식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굽이 낮고 등글며 집지면과 굽 안바닥까지 유약이 입혀져 있다. 집지면에 규석받침을 놓고 구웠다.





13 地

'地'가 새겨진 잔 靑磁象嵌 '地'銘 盞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and inscription of "Ji(地)"

고려 14세기 | 높이 6.0 입지름 8.8 굽지름 4.3

■ 잔의 바깥면 세 곳에 '地'자가 상감되어 있는 잔이다. 유물중에는 '地' 외에도 '天', '王'이 상감된 예가 있다. 이러한 유물은 고려시대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의 행사에 사용된 그릇으로 생각된다. 흥미로운 점은 백상감으로 된 이종의 원 안에 地를 상감하였는데 한 글자는 똑바로 새긴 반면, 나머지 다른 두 개의 글자는 옆으로 눕어진 상태로 상감하였다는 것이다. 그릇이 비교적 무겁고 두꺼운 편이다. 잔의 구연을 둥글고 도톰하게 만들었으며 아래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는 형태이다. 잔의 저부에는 유약이 묻쳐 있기도 하며 굽 안바닥에는 균열이 나 있다. 접지면 세 곳에 규석을 받쳐 구웠다.





14

국화무늬 꽃모양 접시 靑磁象嵌 菊花文 花形模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 | 높이 3.8 입지름 9.1 굽지름 5.6

국화꽃이 상감된 꽃모양의 접시이다. 위에서 보면 열여섯 개의 꽃잎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이다. 각 꽃잎의 구연을 등글게 조각하였으며 끝부분은 약간 도톰하게 깎아냈다. 그리고 각 꽃잎이 도려내진 부분에 맞춰 세로로 길게 접시의 측면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 골이 지도록 깎아냈다. 접시의 바깥면은 위쪽과 아래쪽에 두 줄의 백상감 선을 두르고, 각 꽃잎에 해당하는 면에도 세로로 선을 상감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그 안에 국화꽃송이 세 개를 이은 국화절지문을 각각 새겨 넣었다. 접시 안쪽에는 바닥면에만 무늬가 있는데 중심에 국화꽃 한 송이와 그 둘레에 여의두무늬를 등글게 배치하였다. 고려시대 후기에 많이 만들어진 화형접시 형태로, 굽은 바닥면의 안쪽을 깎아내어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안굽 형태이다. 굽 안바닥면까지 유약을 입혔으며 규석받침을 세 곳에 받쳐 구웠다.





15

용무늬 매병 靑磁象嵌 龍文 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laid dragon design

고려 14세기 말 | 높이 33.4 입지름 6.4 굽지름 10.5

고려시대 말 상감청자가 쇠퇴하여 분청사기로 변모해가는 시기에 만들어진 매병이다. 구연이 나팔꽃모양으로 둥글게 외반된 형태이며, 몸체는 목에서부터 등근 원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다가 저부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들어 측선이 만들어내는 완만한 S자 곡선이 아름답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이 저부가 좁기 때문에 불안해 보이기도 하다. 매병의 어깨와 저부에 연관문을 상감하였는데 위에는 흑백상감으로 꽃잎 안에 점을 새긴 모양이며 아래에는 백상감 선 두 줄로 간략하게 표현했다. 위쪽의 연관문 아래로는 휘장과 같은 네 개의 무늬를 연이어 상감했으며, 몸체 중심에는 여의주와 용을 울동감있게 새겨 넣었다. 여의주를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구불거리는 용의 모습을 등근 매병의 몸체를 빙 둘러 장식했다. 턱밑과 머리 뒤쪽, 발과 다리에 나 있는 갈기, 등쪽에 지느러미와 같은 모양의 서기鬚는 백토와 자토를 번갈아 상감하여 흑백 대비를 주었다. 반면 용의 이빨과 몸의 비늘은 백상감으로 표현하였으며 목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몸의 아래부분은 비늘을 표현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다. 용의 등과 여의주에서는 나뭇가지와 유사한 형태의 구불구불한 서기가 피어오른다. 전체적으로 약간 산화되어 탁한 갈색을 띠며 묻혀있는 곳이 많다. 태토 역시 철반점이 많이 섞여 있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접지면을 제외한 바닥면을 양계 깎아내고 접지면과 굽 안바닥 전체에 모래를 깔고 구웠다. 이 매병은 전남 강진군 작천면 용상리 구상마을에서 국화무늬가 상감된 접시와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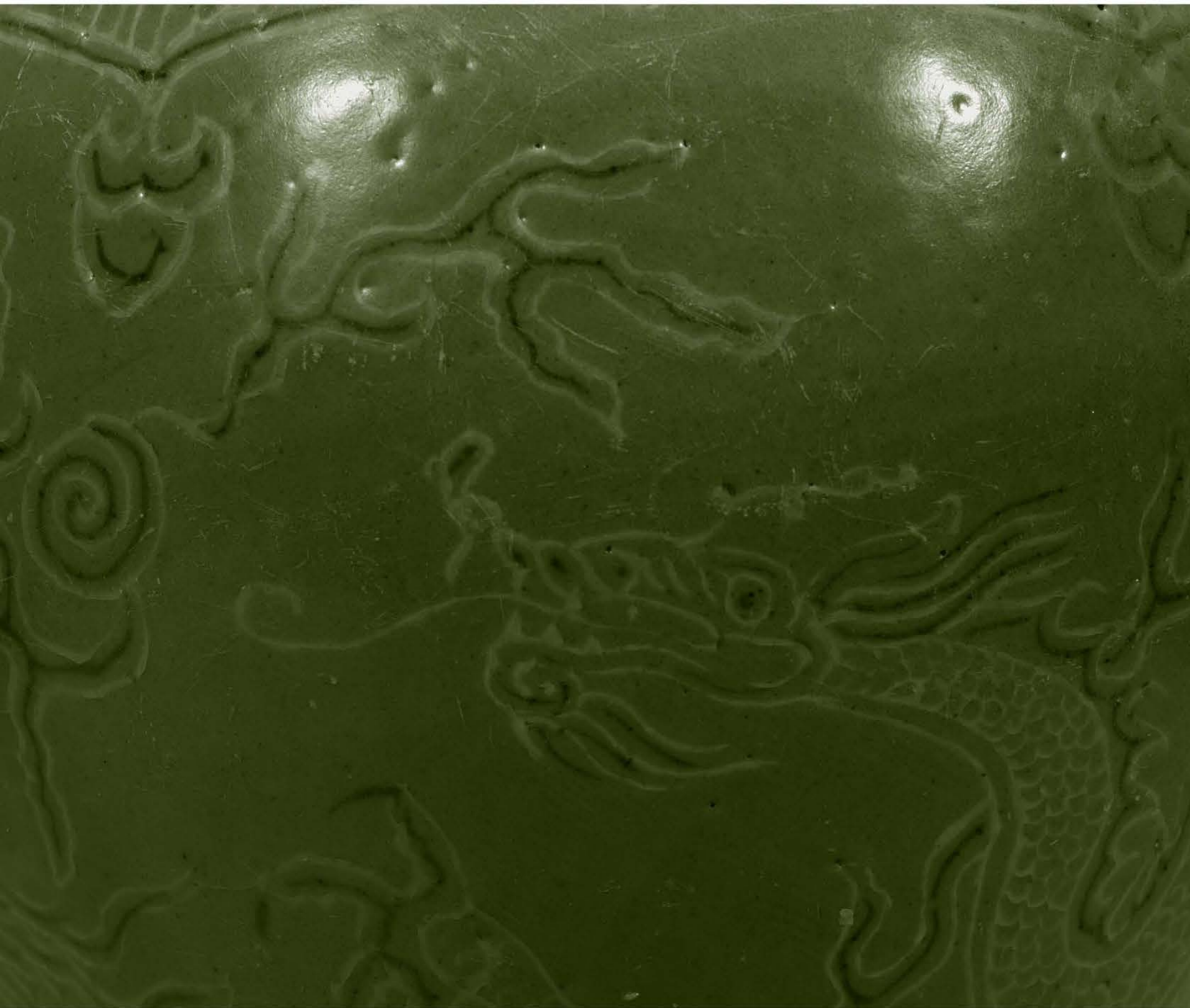
16 국화무늬 접시 靑磁象嵌菊花文 碟匙

Celadon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말 | 높이 4.8 입지름 13.8 굽지름 5.2

용이 상감된 매병과 같이 출토되었다고 하는 국화무늬 접시이다. 굽은 다리굽이며, 편평한 저부에서 각이 저서 구연까지 직선을 이루며 벌어지는 형태이다. 고려시대 후기부터는 국화를 상감할 때도 흑백상감하지 않고 간략한 형태의 국화꽃을 백토상감만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대접이나 접시의 안쪽 또는 바깥쪽 측면에 국화꽃을 네 곳에 일정하게 표현하게 된다. 이 접시 역시 바깥쪽 측면에는 중간에 두 줄의 선을 새겨 넣었고, 안쪽 측면에 국화꽃을 네 곳에 배치하였다. 바닥면 중심에도 같은 국화가 하나 있으며 그 둘레에 여의두문을 동글게 상감했다. 안쪽 구연 바로 아래에는 간략하게 변형된 넝쿨무늬 띠를 돌렸다. 태토에는 모래가 섞여 있어 표면이 거칠고, 유약도 녹갈색을 띠며 얇게 시유되었다. 굽깎음이 정교하지 못하며,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낸 후 굽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도판목록
List Of Plates

- 01



꽃넝쿨무늬 완 靑磁陰刻花唐草文盃
Celadon Bowl with incised flower-v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7 입지름 18.6 굽지름 5.7
- 02



꽃모양 접시 靑磁花形模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고려 12세기 | 높이 3.0 입지름 15.5 굽지름 9.9
- 03



잔 靑磁 盞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잔 - 높이 5.8 입지름 9.8~10.3 굽지름 4.8 | 뚜껑 - 높이 3.6 입지름 11.3 굽지름 9.0
- 04



참외모양 주자 靑磁鐵畫線文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iron-painted li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2 입지름 3.1 굽지름 3.2
- 05



모란무늬 정병 靑磁象嵌牡丹文淨瓶
Celadon Kundika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41.5 주구입지름 3.5 몸체지름 14.5 굽지름 9.4
- 06



연꽃·국화무늬 참외모양 주자 靑磁堆畫蓮菊文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Pitcher with painted lotus an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주자 - 높이 19.8 입지름 3.5 굽지름 10.0 | 뚜껑 - 높이 4.4 지름 4.6
- 07



매화갈대학나비무늬 사이호 靑磁象嵌梅蘆鶴蝶文 四耳壺
Celadon Jar with inlaid ume flower, reed, crane and butterfly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3.1 입지름 8.4 굽지름 12.0
- 08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靑磁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14세기 | 높이 3.7 입지름 8.0~11.3 굽지름 3.9

- 09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靑磁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14세기 | 높이 4.6 입지름 7.1~9.6 굽지름 4.2
- 10



국화무늬 용머리장식 꽃모양 잔 靑磁象嵌菊花文花形龍頭盞
Celadon Flower-shaped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14세기 | 높이 4.3 입지름 6.8~9.3 굽지름 4.0
- 11



국화무늬 능화모양 접시 靑磁象嵌菊花文菱花形模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2.5 입지름 22.7 굽지름 7.2 / 18.5
- 12



'三官'이 새겨진 국화무늬 잔 靑磁象嵌菊花文'三官'銘盞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and inscription of "Sam-Gwan(三官)"
고려 13세기 | 높이 6.8 입지름 10.3 굽지름 3.4
- 13



'地'가 새겨진 잔 靑磁象嵌'地'銘盞
Celadon Cup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and inscription of "Ji(地)"
고려 14세기 | 높이 6.0 입지름 8.8 굽지름 4.3
- 14



국화무늬 꽃모양 접시 靑磁象嵌菊花文花形 匙
Celadon Flower-shaped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 높이 3.8 입지름 9.1 굽지름 5.6
- 15



용무늬 매병 靑磁象嵌龍文梅瓶
Celadon Mae-Byeong with inlaid dragon design
고려 14세기 말 | 높이 33.4 입지름 6.4 굽지름 10.5
- 16



국화무늬 접시 靑磁象嵌菊花文模匙
Celadon Dish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4세기 말 | 높이 4.8 입지름 13.8 굽지름 5.2

열
에
시
하
나
를
선택
한
것
네

2 0 0 9 년 구 입 유 물 특 별 전
Special Exhibition of the purchased Collections 2009

기획편집 강진청자박물관 학예연구실

사진촬영 김광섭_케이아트 스튜디오

발행일 2009년 8월 4일 인쇄
2009년 8월 8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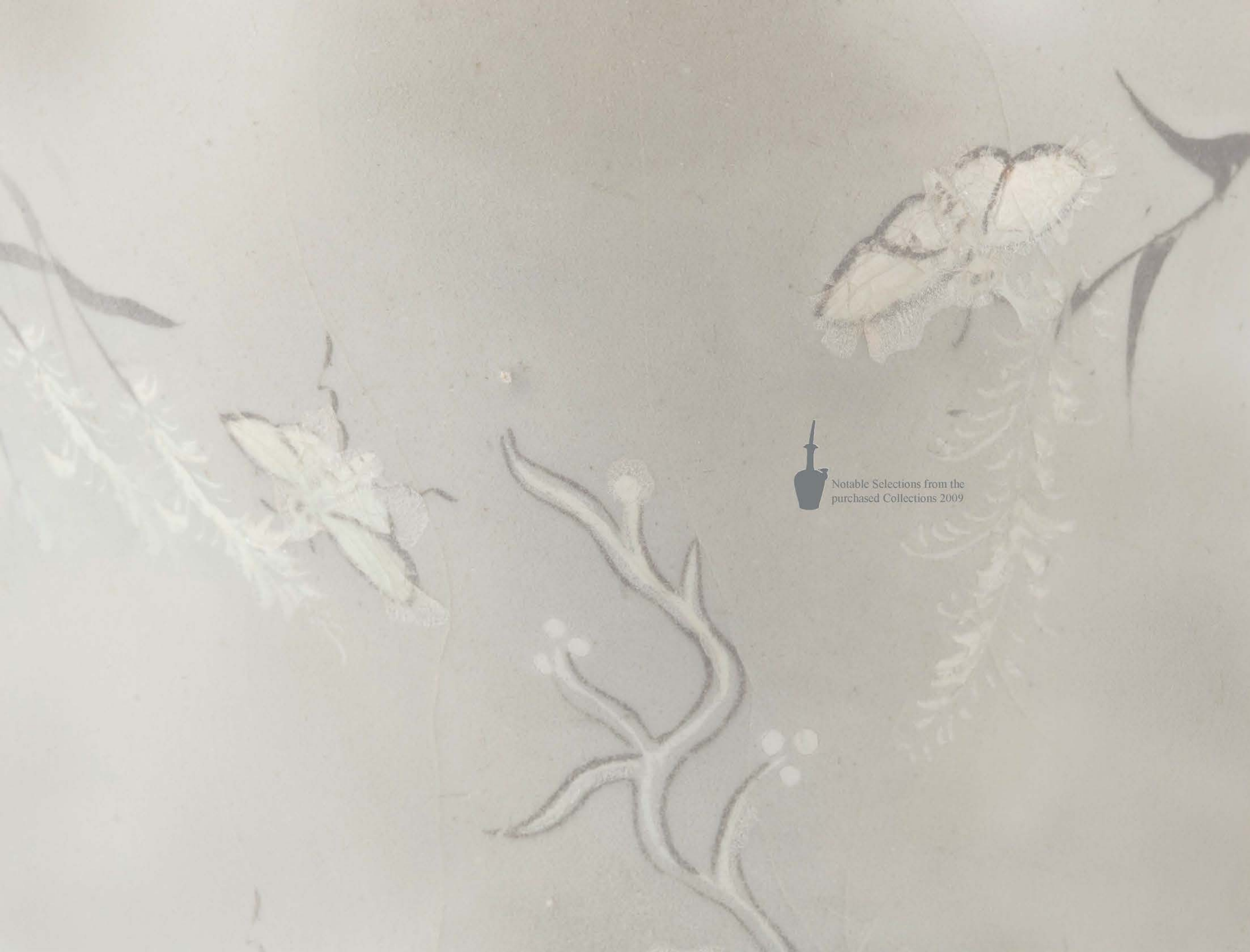
편저 강진청자박물관
GANGJIN CELADON MUSEUM
527-872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27
127 Sadang-ri Daegu-myeon Gangjin-gun
Jeollanam-do, KOREA
Tel. 061_430_3718 Fax. 061_430_3719

발행 예맥
110-091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37-18호 1층
Tel. 02_745_8334~5 Fax. 02_742_4201

북디자인 김형철

ISBN 978-89-88502-39-6

© 강진청자박물관 2009 비매품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강진청자박물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게재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Notable Selections from the
purchased Collections 2009